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및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1차원고접수: 2024.04.09. 수정원고접수: 2024.05.29. 최종게재결정: 2024.06.23.

최인숙¹

¹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 아동청소년연구센터, 부교수

Choi, Insuk¹

¹Dep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 Center for Child and Youth, Wonkwang University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가운데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6학년 2,9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의 Model 4, Model 7을 활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아졌고 차별가해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존중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차별가해행동에 대한 차별피해경험의 직접효과와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초기 청소년기부터 차별행동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초등학생, 차별피해경험, 차별가해행동, 우울, 인권존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between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Human Rights Practices Surve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im et al., 2022)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of 2,994 students in early adolescence.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the Process Macro for SPSS 4.1 (Hayes, 2022), model 4 and model 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epression.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significant, and the mediating effect became smaller as the level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creased. This study confirms the direct effect of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on discriminatory behavior, the in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providing empirical data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discriminatory behavior from early adolescence.

Key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scrimination victim, discriminatory behavior, depression, respect for human rights

Corresponding to 최인숙 (Choi, Insuk)

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 아동청소년연구센터, 부교수 (Dep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 Center for Child and Youth, Wonkwang University) E-mail: aneschoi01@wk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는 개인의 특성이나 소속된 집단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공격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도 차별경험에서 예외는 아니다. 2019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 성별로 인한 차별경험이 여아의 경우 46.5%, 남아의 경우 31.0%, 연령으로 인한 차별피해경험도 여아 46.4%, 남아 33.6%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학업성취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20년 5월 4일).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구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Fullenwider, 1980). 인종 차별의 역사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는 차별을 집단의 관점에서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 집단 구성원의 관행과 행동으로 정의하였다(Orbe & Camara, 2010). 또한 차별을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박현식, 2008)이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타집단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Saenger, 1953). 차별의 원인인 고정관념과 편견은 인종, 성별, 연령, 신체나 외모, 사회경제적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될 수 있다(신윤지, 최인숙, 2019). 차별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며(Hecht, 1998), 차별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아니더라도 차별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어 누구라도 이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차별이 비단 성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

며 아동·청소년이 많은 시간 머무르는 학교는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차별행동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 한 번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Sellers & Shelton, 2003).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폭력이 이 차별과 관련이 있다.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외모나 신체 특성 등을 이유로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리고 공격을 가하는 행동은 학교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김진숙, 문현주, 신혜숙, 2014; 정규형, 2016). 학업을 중시하는 교육 경향과 사회 속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 사이의 차이는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차별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차별의 부정적 영향은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차별 연구가 다수 진행된 국외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실제로 차별경험은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데 성인보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차별피해경험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하고(Heard-Garris, Williams, & Davis, 2018),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riest et al., 2013). 차별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차별과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주의집중이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오승환, 김광혁, 2017), 자아존중감(김수정, 2020; 신윤지, 최인숙, 2019), 우울(김수정, 2020; 손한결, 2023; 신자현, 심재환, 전하민, 2022; Christophe, & Stein, 2024), 불안(김수정, 2020) 등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차별피해경험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 중 하나는 차별피해를 입은 개인이 차별을 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Bandura(Bandura, 1969)와 Akers(Akers & Jennings, 2015)의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Bandura, 1969)에 따르면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된 경험 또는 이를 관찰하는 것

이 폭력을 학습할 기회가 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한 Akers의 사회학습이론(Akers & Jennings, 2015)에서도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폭력피해-가해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오주, 아영아, 2006; 조한익, 조민경, 2013)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차별피해가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오세현, 강현아, 2018; 정규형, 2016; 홍기혜, 2019)은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정규형, 2016; 홍기혜, 2019)으로 하거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오세현, 강현아, 2018)으로 하고 있어 일반 초등학생의 차별 피해와 가해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시기로의 진입이 빨라져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이에 따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초기 청소년 시기로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신윤지, 최인숙, 2019; Civitillo, Göbel, Preusche, & Jugert, 2021; Zeiders, Umana-Taylor, & Derlan, 2013).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아동이 10세 정도에 이르면 차별적 행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므로(McKown & Weinstein, 2003), 이 시기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차별로부터 초기 청소년을 보호할 뿐 아니라 차별가해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시기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이론 가운데 일반 긴장이론(Agnew, 2003; Steele, 2016)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청소년은 일탈행동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정적 생활사건에 취약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상태로는 대표적으로 우울감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이 겪는 차별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적용된다(손한결, 2023).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등으로 인해 존재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차별피해경험은 부정적 감정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조사한 연구(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에서는 화나 짜증(35.6%)에 이어 우울(23.0%)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차별피해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 17세 청소년(김수정, 2020), 중·고등학생(손한결, 2023), 9 ~ 24세 다문화 청소년(신자현 등, 2022), 15 ~ 17세 흑인 여성 청소년(Butler-Barnes et al., 2022)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뿐 아니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흑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Lavner et al., 2023)에서도 일관되게 차별피해경험과 우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김희진, 2017; 차유정, 황의갑, 2017)에서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차별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김희진, 2017)에서는 우울이 차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포함한 부정적 감정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차유정, 황의갑, 2017)에서도 부정적 감정이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별을 다루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비행 피해와 가해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양혁, 양나연, 김은주, 김보영, 2019)에서는 비행피해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비행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차별피해경험이 우울감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은 차별피해경험이 야기하는 부정적 감정이나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지각하는 인권존중의 수준은 자신이 생활하는 여러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ks, 2009). 차별을 받는 경험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등 피해상황을 경험했을 때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심한 경우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가정에서 학교, 사회, 온라인 등의 매체 환경까지 다양하다. 직접 접촉하는 주변 환경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차별피해로 야기되는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피해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에 대한 인권 존중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지만, 최근 한국 중·고등학생의 지각된 인권존중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Kim & Bae, 2023)에 따르면 청소년의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차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정, 학교, 사회 등 주변 환경에서 지각한 인권존중의 수준이 우울감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써 지각된 인권존중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별 예방과 차별피해에 대한 개입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써 지각된 인권존중의 효과를 검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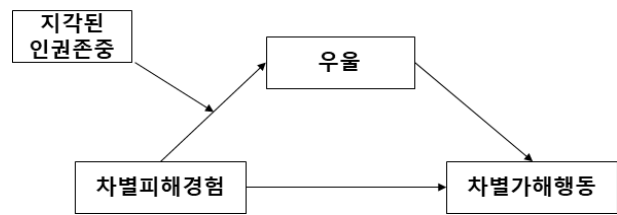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표본은 2021년 교육통계 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방법을 통해 9,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정하고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참여에 동의한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당시 COVID-19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면접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 12월에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를 2024년 2월부터 4주 동안 분석하였으며,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6학년 2,9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453명(48.5%), 여학생은 1,541명(51.5%)이었고, 학년은 4학년 1,019명(34.0%), 5학년 1,014명(33.9%), 6학년 961명(32.1%)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형의 비율(89.0%)이 가장 높았고,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중간 이상(9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측정도구

1) 차별피해경험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을 묻는 10개 문항 중에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나 신체조건과 관련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 장애에 관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김승경 등, 2016)와 장애로 인한 차별은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선행 연구(황아리영, 정익중, 2020)를 근거로 차별피해경험 4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한 번도 없음(1)’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피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차별피해경험의 Cronbach's α 값은 .7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차별가해행동

초등학생의 차별가해행동은 차별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한 차별가해행동을 한 경험을 묻는 문항 중에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나 신체조건과 관

련된 4개 문항을 선정하여 이들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한 번도 없음(1)’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가해행동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차별피해경험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6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지각된 인권존중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인권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을 이들 4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1)’에서 ‘매우 존중받는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2로 나타났다.

4) 우울

초등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된 우울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86이었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했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표본 수를 5,000으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의 Model 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지각된 인권존중,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의 전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1.29($SD = .53$)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1년 동안 차별피해경험을 1회 이상 경험한 초등학생은 1,150명으로 약 38.8%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인권존중 수준은 3.25($SD = .52$)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우울은 1.72($SD = .83$)로 낮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차별가해행동도 1.10($SD = .29$)로 경험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r = .36, p < .001$), 차별가해행동($r = .48, p < .001$)과

표 1.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지각된 인권존중, 우울, 차별가해행동 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차별피해경험	1			
2. 지각된 인권존중	-.26***	1		
3. 우울	.36***	-.30***	1	
4. 차별가해행동	.48***	-.17***	.23***	1
<i>M</i>	1.29	3.25	1.72	1.10
<i>SD</i>	.53	.52	.83	.29

*** $p < .001$.

.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수준이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지각된 인권존중은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6, p < .001$). 이어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수준은 우울($r = -.30, p < .001$) 및 차별가해행동($r = -.17, p < .001$)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우울과 차별가해행동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p < .001$).

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차별가해행동($\beta = .45,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이 차별피해경험을 많이 할수록 차별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36, p < .001$), 우울은 차별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7, p < .001$). 즉 차별피해를 많이 경험한 초등학생은 우울 수준이 높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차별가해행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차별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상태가 타인에 대한 차별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행동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1$, 95% CI [.006, .022])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을 통해 차별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인권존중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높고($B = .80$, $p < .001$)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낮을수록($B = -.21$, $p < .01$) 우울이 더 높아졌다. 또한 초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차별피해경험의 효과는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것으

로 나타나($B = -.11$, $p < .05$)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인권존중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의 그래프에서 X축은 차별피해경험을, Y축은 우울을, 빨간색 실선은 낮은 수준(-1표준편차)의 인권존중, 파란색 실선은 평균인 중간 수준의 인권존중, 초록색 실선은 높은 수준(+1표준편차)의 인권존중을 의미한다. 지각된 인권존중의 3수준(-1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에서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권존중 수

표 4.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수준	<i>B</i>	<i>S.E.</i>	95% CI	
			<i>LLCI</i>	<i>ULCI</i>
-1SD	.50	.03	.438	.558
Mean	.44	.03	.382	.503
+1SD	.39	.05	.298	.475

표 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경로	β	<i>B</i>	<i>S.E.</i>	<i>t</i>	R^2	<i>F</i>
차별피해경험 → 우울	.37	.56	.03	19.79***	.13	391.80***
차별피해경험 → 차별가해행동	.45	.26	.01	25.09***		
우울 → 차별가해행동	.07	.03	.01	3.81***	.23	408.07***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Effect	Boot <i>S.E.</i>	95% CI	
			Boot <i>LLCI</i>	Boot <i>ULCI</i>
차별피해경험 → 우울 → 차별가해행동	.01	.00	.006	.022

*** $p < .001$.

표 3. 조건부 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i>B</i>	<i>S.E.</i>	<i>t</i>	95% CI	
				<i>LLCI</i>	<i>ULCI</i>
종속변인: 우울					
차별피해경험	.80	.14	5.81***	.527	1.064
지각된 인권존중	-.21	.07	-3.07**	-.335	-.074
차별피해경험×지각된 인권존중	-.11	.05	-2.41*	-.196	-.020
$R^2 = .17$, $F = 186.64^{***}$					

* $p < .05$, ** $p < .01$, *** $p < .001$.

준이이 평균값 $-1SD(B = .50, 95\% \text{ CI } [.438, .558])$ 일 때와 평균값($B = .44, 95\% \text{ CI } [.382, .503]$), 평균값 $+1SD(B = .39, 95\% \text{ CI } [.298, .475])$ 일 때,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지각된 인권존중의 모든 수준에서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많으면 우울감이 높아지는데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차별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어서 그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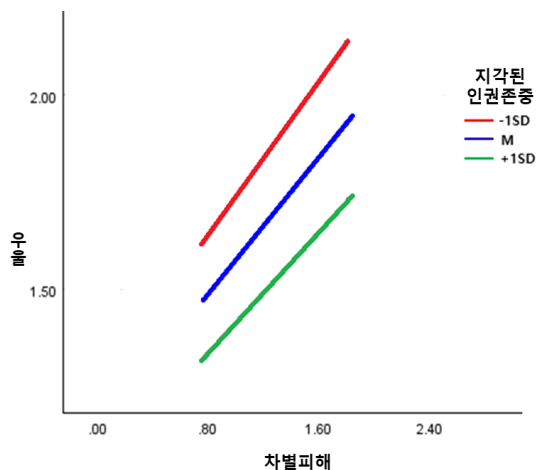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효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모델 7을 통해 조절된 매개지수와 매개지수 추론 검정의 결과물(부트스트랩 신뢰구간 포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00$ 이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95% CI $[-.00675, -.00008]$)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표 5 참조).

지각된 인권존중에 따른 차별피해경험이 우울감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탐색한 결과,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권존중 수준이 낮을 때($B = .01, \text{ CI } [.005, .020]$)와 평균일 때($B = .01, \text{ CI } [.005, .018]$), 높을 때($B = .01, \text{ CI } [.004, .016]$) 모두 유의하였다. 이로써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차별가해행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매개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이러한 관계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감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표 5.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00	.00	-.007	-.000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건부 간접효과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1SD	.01	.005	.020	
Mean	.01	.005	.018	
+1SD	.01	.004	.016	

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차별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차별가해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한 다수 선행 연구(오세현, 강현아, 2018; 정규형, 2016; 차유정, 황의갑, 2017; 홍기혜,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학습이론(Akers & Jennings, 2015; Bandura, 1969)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며 이것은 폭력뿐 아니라 일탈이나 비행에도 적용되어 나타난다. 부모나 친구 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폭력적 행동에 노출이 되면 이를 모델링하고 아동 스스로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McHale, Dotterer, & Kim, 2009).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며,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또한 차별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차별행동을 학습하고 자신이 다시 다른 타인에게 차별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환경에서 차별행동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내에서 차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으로 차별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김수정, 2020; 손한결, 2023; 신자현 등, 2022; Butler-Barnes et al., 2022; Lavner et al., 2023)의 결과와 일치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점차 관계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이른 사춘기 진입으로 인해 정서적으로도 주변 자극에 민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차별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부정적 감정인 우울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차별가해행동에 대한 우울의 직접효과도 유의미했는데, 초등학생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차별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과 차별가해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김희진, 2017; 차유정, 황의갑,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양혁 등, 2019)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우울은 건강한 사람들도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특히 청소년들은 우울감에 대해 주로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보고하였다(Renouf & Harter, 1990). 청소년이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우울감이 심화되기도 하고 외부로 쌓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으로 인한 우울감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공격적 행동의 일환으로 차별가해행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차별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차별가해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폭력경험이나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김은경, 이정숙, 2009; 김정란, 2014; 조민경, 조한익, 2019)나 부정적 생활사건과 청소년의 일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의 역할을 제시한 일반긴장이론(Agnew, 2003; Steele, 2016)과 맥을 같이한다. 즉 차별피해경험은 초등학생에게 슬픔과 분노가 수반되는 우울이라는 부정적 감정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기술이 부족한 초등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차별피해와 유사하게 차별가해행동으로 이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피해경험에 대한 개입 방안에서 피해경험 이후에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담 등의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별피해경험이 개인의 내재화 문

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차별피해자 대상 심리적 개입이 중요하며 동시에 차별가해행동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입으로써도 의미를 가진다.

둘째,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인권존중은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우울의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초등학생은 차별피해경험이 늘어나더라도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에, 인권존중 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초등학생은 차별피해경험이 늘어나면 우울도 상대적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늘어날수록 우울감도 높아지고, 이어서 차별가해행동이 많아지는 데 이러한 관계를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각된 인권존중과 우울과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Kim 과 Bae의 연구(2023), 청소년의 인권존중경험과 차별가해행동과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김준범과 이진석의 연구(2020)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환경인 가정과 학교, 사회뿐 아니라 최근 들어 청소년의 주요한 환경 중 하나인 인터넷 환경에서 스스로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차별피해로 인한 감정적 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되며 차별가해행동을 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주변환경이 인권친화적 환경일 때 차별가해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차별피해를 막고 차별가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내의 인권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86)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기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도덕적 행동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로 습관화할 때 자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친밀하고 권위 있는 부모나 선생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리 잡은 도덕적 규범은 단순히 도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의 직접적인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별행동을 기피하고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김준범, 이진석, 2020). 차별가해행동에 대한 인권존중의 보호 효과를 확인한 이 연구의 결과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변의 환경이 인권친화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생의 의사결정권과 참여를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와 학교분위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개인의 조건이나 특성으로 인한 차별을 타파하고 개인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이 청소년의 차별행동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수집된 횡단자료로 변인 간의 인과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의 유형을 4개로 한정하고 차별경험의 횟수를 범주화하여 살펴보았으나 개인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경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차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에 대한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변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초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생의 차별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별경험의 양상이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 간의 역동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

교 학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련성 및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이른 시기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별의 위험성을 줄이고 차별의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하여 차별예방교육과 아울러 차별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프로그램 등 개입 방안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덧붙여 이 연구의 결과는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인권존중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부모 및 교사 대상 교육,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정 (2020). 일상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3), 392-428.
<https://doi.org/10.15709/hswr.2020.40.3.392>
-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정란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내재화의 매개효과: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내재화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69-279.
- 김준범, 이진석 (2020). 청소년 인권존중 경험과 교육이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127-152.

- <https://doi.org/10.17997/SWRY.64.1.5>
- 김진숙, 문현주, 신혜숙 (2014). 학교환경요인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폭력 경험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1(1), 221-241.
- 김희진 (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187-209.
<https://doi.org/10.19034/KAYW.2017.19.3.08>
- 박현식 (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5.
<https://doi.org/10.21194/kjgsw..41.200809.7>
- 손한결 (2023). 청소년의 차별 피해 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 수면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10), 155-174.
<https://doi.org/10.21509/KJYS.2023.10.30.10.155>
- 신윤지, 최인숙 (2019).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255-1273.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3.1255>
- 신자현, 심재환, 전하민 (2022).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1), 63-90.
<https://doi.org/10.51155/KAMW.2022.4.1.63>
- 양혁, 양나연, 김은주, 김보영 (2019). 비행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 및 비행가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673-691.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2.673>
- 연합뉴스 (2020. 5. 4). 아동차별 피해경험, 성별·연령 탓 가장 흔해...서울시 실태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5042870Y>에서 2024년 2월 2일 인출
- 오세현, 강현아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차별 피해경험이 차별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4), 611-637.
<https://doi.org/10.21459/kccr.2018.22.4.611>
- 오승환, 김광혁 (2017). 아동이 경험한 차별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49-67.
<https://doi.org/10.20993/jSSW.39.3>
- 오주,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정규형 (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5), 31-55.
- 조민경, 조한익 (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7-38.
<https://doi.org/10.16983/kjisp.2019.16.1.17>
- 조한익, 조민경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 관계: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13-932.
- 차유정, 황의갑 (2017).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35-154.
<https://doi.org/10.25277/KCPR.2017.13.3.135>
- 홍기혜 (2019).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7(1), 33-66.
<https://doi.org/10.36220/kjv.2019.27.1.33>
- 황아리영, 정익중 (2020). 초등학교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은 매개효과인가, 조절효과인가?. *학교사회복지*, 51, 237-262.
<https://doi.org/10.20993/jSSW.51.10>
- Agnew, R. (2003). An integrated theory of the adolescent peak in offending. *Youth & Society*, 34(3), 263-299.
<https://doi.org/10.1177/0044118X022500>
- Akers, R. L., & Jennings, W. G. (2015). Social learning theory. In A. R. Piquero (Ed.), *The handbook of criminological theory* (pp. 230-240).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Inc.
- Bandura, A. (1969). Social-learning theory of identificatory processes.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213-262).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Hall.
- Banks, J. A. (2009). Human rights,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al Forum*, 73(2), 100-110.
<https://doi.org/10.1080/00131720902739478>
- Butler-Barnes, S. T., Leath, S., Inniss-Thompson, M. N., Allen, P. C., D'Almeida, M. E. D. A., & Boyd, D. T. (2022).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by teachers: Risks for black girl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uicidal ideatio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8(4), 469-482.
<https://doi.org/10.1037/cdp0000538>
- Christophe, N. K., & Stein, G. L. (2024). Patterns of cultural and coping factors among minoritized youth: Associations with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Race and Social Problems*, 16, 185-197.
<https://doi.org/10.1007/s12552-024-09410-4>
- Civitillo, S., Göbel, K., Preusche, Z., & Jugert, P. (2021).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perceived personal and group ethnic discrimination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protective role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quality and school climat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77, 77-99.
<https://doi.org/10.1002/cad.20415>
- Fullenwider, R. K. (1980). *Reverse discrimination controversy: A moral and legal analysis*.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ard-Garris, N., Williams, D. R., & Davis, M. (2018). Structuring research to address discrimination as a factor i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JAMA Pediatrics*, 172(10), 910-912.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18.2335>
- Hecht, T. (1998). *At home in the street: Street children of northeast Brazil*.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Kim, S. A. & Bae, S. M. (2023). Impacts of perceived stress, neglect, victim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I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pp. 1-8). Springer.
<https://doi.org/10.1007/s10578-023-01491-3>
- Lavner, J. A., Ong, M. L., Carter, S. E., Hart, A. R., & Beach, S. R. (2023). Racial discrimination predicts depressive symptoms throughout adolescence among Black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59(1), 7-14.
<https://doi.org/10.1037/dev0001456>
- McHale, S. M., Dotterer, A., & Kim, J. (2009).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media and youth develop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8), 1186-1203.
<https://doi.org/10.1031177/0002764209331541>
- McKown, C., & Weinstein, R. S. (2003). The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of stereotype consciousnes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2), 498-515.
<https://doi.org/10.1111/1467-8624.7402012>
- Orbe, M. P., & Camara, S. K. (2010). Defining discrimination across cultural groups: Exploring the [un-] coordinated management of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3), 283-293.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0.02.004>
- Priest, N., Paradies, Y., Trenerry, B., Truong, M., Karlsen, S., & Kelly, Y. (2013).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ported racism and health and wellbeing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ocial Science & Medicine*, 95, 115-127.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2.11.031>
- Renouf, A. G., & Harter, S. (1990). Low self-worth and anger as component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 in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 293-310.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078X>
- Saenger, G. (1953).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 NY: Harper.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https://doi.org/10.1037/a0035754>
- Sellers, R. M., & Shelton, J. N. (2003). The role of racial identity in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79-1092. <https://doi.org/10.1037/0022-3514.84.5.1079>
- Steele, J. L. (2016). Race and general strain theory: Examining the impact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fear on adolescent marijuana and alcohol use. *Substance Use & Misuse*, 51(12), 1637-1648.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2.11.031>
- Zeiders, K. H., Umana-Taylor, A. J., & Derlan, C. L. (2013).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self-esteem in Latino youths: Examining the role of gender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951-963. <https://doi.org/10.1037/a0028866>